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오바다서**

## 에돔의 죄

(오바다 1:1 ~ 9)

원로목사 **이종윤**

‘오바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열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오바다 선지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언제 씌어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주전 850년경, 혹은 주전 31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 1. 에돔의 특징

에돔은 이삭의 아들에서의 별명으로 에돔의 죄는 에서의 후예들의 죄를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가 살던 땅으로 다른 말로 세일이라고도 합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려 지는데 유다의 동쪽과 남쪽의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개간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중요한 이유는 상인들이 이곳을 통과해야만 시리아와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군사 요충지가 됩니다. 에돔 백성의 특징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① 호전적입니다(창27:40). 에돔 백성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 ②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대하 25:14-20).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 ③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렘 27:9).
- ④ 교만한 사람들입니다(렘49:16).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에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⑤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겔25:12).
- ⑥ 다른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한 사람들입니다(민 20:18).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에돔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 ⑦ 공격적입니다. 에돔 백성들은 형제국인 유다를 공격한 침략자였습니다(대하20:10).
- ⑧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 백성들은 이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시137:7-8).

### 2. 에돔의 교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능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3절)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 백성의 이 모든 특징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4절).

낭떠러지와 같이 위태로운 곳에 집을 짓고 바위 끝에 앉아 있기를 즐기는 독수리는 교만한 새입니다. 에돔은 마치 독수리처럼 스스로 방어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교만이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원죄는 ‘교만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큰 죄로 지적하며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4절).

에돔은 지리적으로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을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흠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5절).

도둑을 맞아도 집에 남은 것이 있는 법이고 포도를 수확해도 나무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에돔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에돔은 자기들을 돕는 동맹군이 많으므로 하나님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은 에돔이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에돔은 또한 자기 지혜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에돔은 옛적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에돔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삶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에돔은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 순위로 삼습니다.

성도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때 에돔과 같은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돔과 같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서울교회 전교인 일일 수련회

##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느1:3)

### 9.16(토) 오전 10시 / 서울교회 본당



**서울교회 전교인 일일수련회**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역사해 주소서!

주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느1:3)
대상	서울교회 전교인
일시	2017. 9.16(토) am 10:00 ~ pm 3:30
장소	서울교회 본당



##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하반기 다락방 리더 훈련을 9월 6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강한다. 다락방 리더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다락방 개학은 9월 8일(금)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다 하는지라" (느 1:3)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현재 우리 서울교회의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성도들은 상처 입고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이어야 할 서울교회 목회 이념은 사라져 버렸다. 이웃의 등대·민족의 구원선·세상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도하던 교회가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다.

이에 교회는 다시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일일 수련회를 9월 16일(토)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와 같은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김상식 이순례 (1) 이계홍 성순자 (1) 조서현 최진이 (0.5) 박영숙 (0.5)

(다음 주 계속)



적법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19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선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선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 예수의 비유

## 좁은 문

(눅 13:22-30)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나누시던 중 사람들이 "주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때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게 될 것입니까?"라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직설적인 대답을 피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데 그 문이 매우 좁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앞서 죽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

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후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동양인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서양인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인 1519년에는 5억이라는 수에 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백년이 지난 1910년, 에딘버러에서 전세계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모여 세계대회를 연 그 해의 세계 인구는 20억에 도달하였습니다. 불과 400년 동안 5억의 인구각 20억으로 증가했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 가는 문은 단 하나이며 그나마도 좁으니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the door of sheep'이라고 했지만 이보다는 'the sheep's door'라고 하는 것이 더 인격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우리이고 하나는 산중에 있는 우리로서 마을에 있는 우리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중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간에 만들어 놓고 양이 가서 밤을 지새우도록 한 곳입니다.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목자는 양을 가뒀던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문을 나오면 양은 목자가 지난 그 길을 따라서 쫓아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목자가 양 우리로부터 끌어내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 속에 들어가 인도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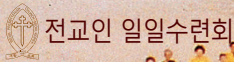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끌어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떨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가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푸른 목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목을 축이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니 이 양들이야말로 행복자요 축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교나 힌두교나 마호멧교와 같은 종교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위한 하나의 pre-evangelism,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 계속)





#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서울교회 전교인 일일수련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에 모여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성과 성전 파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열렬한 기도를 하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아2:15) 하나님의 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묻고, 모이는 사람이 겨우 이것뿐 이냐고 앞잡아 보아서는 안됩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모일 줄 아는 두세 사람은 각심소원(各心所願)하는 일만명보다 더 힘이 됩니다. 모임이란 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희생·이해·양보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구성 인원의 수 때문에 과소평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세 사람은 우선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합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예수 이름과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의 만 배가 되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두세 사람의 모임이리요.

크고 많은 것에는 정성을 기울이지만 적은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일지라도 예수의 정신에 부합하게 진행하고, 예수의 이름이 빛나도록 공명정대하게 처사하는 모임이 되면 예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가 구현되어야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없는 집단이 교회로 자처한 예가 고금에 걸쳐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처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거기에 모이는 인원수나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만큼 거기에 계셔야 할 예수께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타락의

제일보입니다. 교회의 허약은 소수의 인원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계셔야 할 예수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위치를 향상시킨 것은 <모임>이며, 모임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예수의 공식>이며 예수로 동석하시게 한 요인은 <높으신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서울교회 전교인 일일수련회가 <모여서> <예수님 동석하시길 터이니> 또 동의하실 수 있는 일을 해서 <그의 이름에 부합되게 될 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열매를 맺어 서울교회가 재건되는 새 역사가 열릴 줄 믿고,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초청받은 전교인의 참여 바랍니다.

원로 목사 이종윤



## 찬양은 내 신앙의 원동력



이은상집사 (8교구, 은빛찬양대)

나이 40세가 넘어 교회학교를 다니는 두 딸로 인해 나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종이 시끄러워 교회에 향의를 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은 호기심

유발이었고, 이 죄인의 집을 최초로 심방하신 분은 고 옥한흠 목사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긴 세월, 때로는 일탈된 삶의 반복으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던 적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제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온 슬픔과 고통의 풍랑에서 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해 준 특별한 찬송입니다.

부족한 저는 현재 은빛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찬양대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간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분(시 22:1)이시며 인간의 창조 목적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인간의 입술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찬양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영원히 불려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은빛찬양대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찬양대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찬양대원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고 특별히

대원들 간에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팀은 행동의학 저널에서 찬양을 하는 자에게는 찬양을 듣는 자보다 면역체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혈액 속에서 항체로 작용하는 단백질인 '면역글로빈A'의 농도가 현저히 증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찬양대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 방글라데시 사역 사진보고



① ② ③ ④ 방글라데시 장로교회 교회사역 예배 및 행사 (고팔바리, 깨랄가오, 니야못볼, 빠로보바 니블교회)

⑤ ⑥ ⑦ ⑧ 주일학교 행사 (니야못볼, 므롱 랭뚜이 빠라, 다카 은혜교회) 성경공부(니야못볼, 깨랄가오, 바메이초리 교회, 다카 조이학사)

⑨ 목회자 세미나

⑩ ⑪ ⑫ 호프 방글라데시 (교사, 지역개발, 보건 건강, 지역개발 위원 세미나, 봉제, 도서관, 양계, 펄프 사역)



##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9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월례회 및 신학발표회를 소집한다. 또한 동사업회 재정위원회를 소집한다.

■ 금주의 식사 : 정인주 집사 김정애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월 6일(수) 개강하는 다락방 리더 훈련과 9월 8일(금) 개학하는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다락방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우리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2.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9월 16일(토) 모이는 전교인 1일 수련회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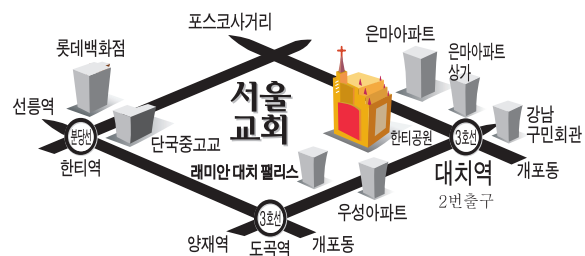
3.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